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0차 회의 4월 26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0차 회의가 26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조미옥·이묘숙·강대석·김남기·이수학 위원 등 독자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총선 민심 흐름 잘 반영...호남 정치방향 제시해야”

▲김윤하=창사를 맞아 28면을 제작했다. 특집판에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 많았다. 정치의식과 지역현안 여론조사는 4·13 총선에 이어 차기 대권에 대한 독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광주역 존치 여부와 광주·무안공항 통합, 무등산 방송통신탑 이전 등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여론 파악도 매우 적절했다. 바람이 있다면 내년 65주년 창사특집에서는 지역민들의 사회적 인식 조사결과를 반영하되, 독자들이 광주일보에 바라는 내용 등도 다뤘으면 좋겠다.

4·13 총선 과정에서 광주일보가 지역 여론을 정확히 파악한 점이 뛰어났다. 다만, 총선전 당별 지역정책 검증 기사는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

또 지난달 30일 KTX 호남선 개통 1주년 맞아 연재한 ‘미완의 과제들’ 기획은 독자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돋보였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유권자들에게 광주중정역 현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주일보가 지역민을 대신해 해당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지 그 결과를 늘 지켜봤으면 한다.

지난 11일자 23면 무등고에서 채희중 사회2부장의 ‘별교주먹의 유래’는 지인들간 말로만 했던 이야기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 있는 주제였다. 21일자 문화면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 오디션 현장을 취재한 발로 뛰는 기사로, 매우 흥미로웠다. 같은 날 18면 과독 50년 호남출신 간호사 인생스토리 제목이 ‘애면글면하지 않고 소리대로 흘러갔다’는 제목을 보며 사전을 찾아보게 됐다. 우리말 어휘력이 풍부한 독자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폭넓은 독자층을 고려한다면 제목의 뜻을 설명해줬어도 좋았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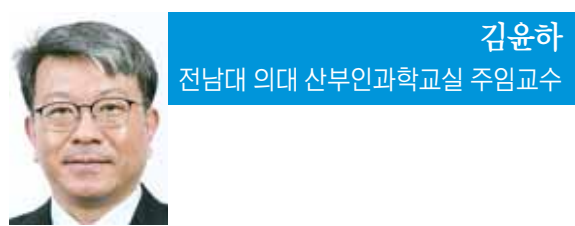
▲강대석=4·13 총선을 앞두고 광주일보는 호남지역 국민의 당 ‘녹색바람’을 일찌감치 예견해 보도했다. 그만큼 민심을 깊게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성과로, 신문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평가한다.

세월호 2주기를 맞아 기획한 ‘세월호 2주년 집중점검, 안전 대한민국 현주소’는 돋보였다. 현 실태를 상·중·하 시리드로 잘 짚었다. 시행하려던 선박공영제를 슬그머니 폐기한 사례나 편법 수확여행 실태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안전을 방기한 정부의 실태와 안전불감증에서 빠져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좋은 기획이었다.

또 22일자 1면 ‘광주시민 가슴에 총질하는 전두환’, 6면 ‘좌익호수 필명 국정원 직원 무죄 유감’, 25일자 ‘5·18 상송왜곡 지만원 이반연 엄벌해야’ 등 기사는 아직도 호남을 계획적으로 폄훼하고 5·18민중항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역 대변자 광주일보가 엄히 단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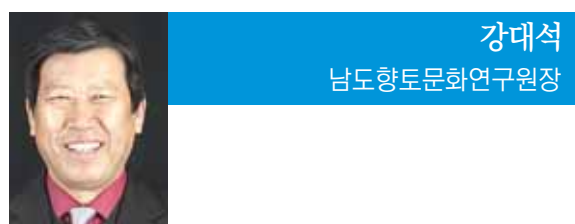
▲이묘숙=지난 20일은 공교롭게도 ‘광주일보 창사 기념일’과 ‘장애인의 날’이 겹쳤던 날이다. 창사특집에 장애인의 날 특집 및 기획기사가 25면 ‘People&Life’에 한 건 뿐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21일자 2면에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는 사진기사가 실렸는데, 장애인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관련 기사는 빠져 있었다. 누구나 선천이나 후천 등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역 장애인의 생활과 복지 등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또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는 연인에게 보내는 ‘연서’와 같은 기사다.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색감의 다채로운 세상의 모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광주역 등 지역 현안 여론조사 적절
다양한 독자 배려해 쉬운 제목으로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세월호 기획 안전불감증 잘 꼬집어
5·18 등 역사 왜곡 엄히 단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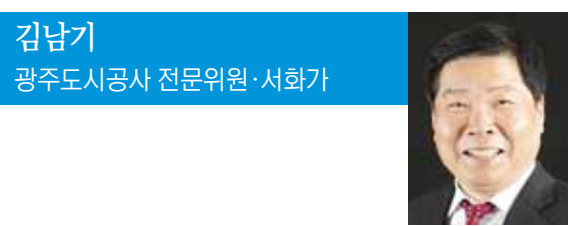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KTX 호남선 1년’ 파수꾼役 충실
지면 성격 안 맞는 기사 배치 아쉬워

습을 그림으로 보니 재미 있다. ‘시즌 1’이 끝나 아쉬웠는데, 곧바로 ‘시즌 2’가 시작돼 기쁘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문화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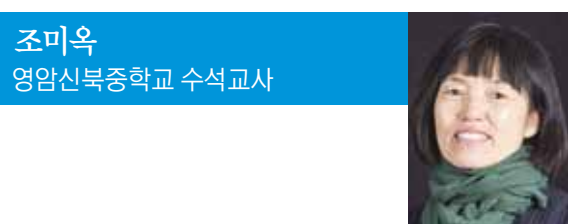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KTX 호남선 개통 1년’ 기획기사는 답답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신문의 ‘파수꾼’ 역할에 충신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추적하는 후속보도를 이어가길 바란다.

경제면에 자동차, 생활·경제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사가 실릴 때가 있다. 특히, 자동차판 등 지면이 세분화돼 있음에도 특색있는 기사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는다. 자동차 시승기 기사가 경제면에 실리기도 한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 특정 정당에 편중된 기사를 연속 배치한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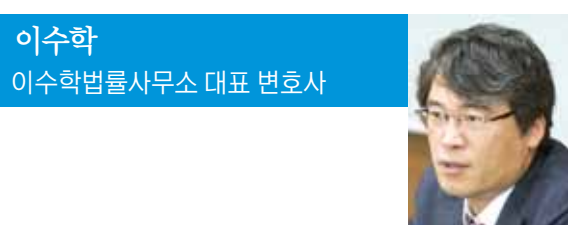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서화가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시즌2 환영
바둑 열기 식기 전 호남 기사 조명을



조미옥
영암신북중학교 수석교사

광주일보, NIE 교재로 탁월
통계·그래프 등 오류 없어야



이수학
이수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기업유치 성공 지자체 사례 분석
청년에 희망주는 기사 발굴해야

▲김남기=신안 비금도 출신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 대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유독 호남지역은 바둑 인제가 많은 곳이다. 바둑 열풍이 식기 전에 지역 내 바둑 인재를 소개하거나, 유명 바둑기사의 성장배경 등을 기획시리즈로 연재했으면 좋겠다.

지난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23면 ‘오피니언’에 실린 장필수 사회부장의 ‘무등고’가 눈길을 끌었다. ‘신문의 향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이신문 독자가 줄어들어 신문사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신문을 통한 학습능력 효과는 높다고 설명했다. 무등고를 읽은 뒤 ‘신문을 보는 독자들의 다양한 본 모습을 담은 사진 콘텐츠’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문화면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는 ‘시즌 1’ 마무리 지면이 돋보였다. ‘화가와 떠난 세계 여행, 위로받은 40년의 동행’이라는 제

목으로 한 면 전체를 제작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곧바로 작가 13인이 이어가는 ‘시즌 2’를 보면서 광주일보가 지역의 예술문화 향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느꼈다.

▲조미옥=NIE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신문으로는 광주일보가 탁월하다. 다른 신문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지면 가운데 ‘People&Life’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준다. 읽는 것 자체로 큰 교육이 된다.

학생들이 즐겨보는 코너 중 하나는 ‘무등고’다. 원고량은 적지만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 스크랩해놓고 보관하고,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신문이 독자와 더 가까워 질 수 있다. 특히, 지난 7일 22면 윤구병 보리출판사 전 대표 표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의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는 매우 좋았다. 강의를 직접 듣지 않았음에도 생생한 현장감이 전달됐다.

아쉬운 점도 있다. 학생들이 수업 중 지면에서 오류를 곧잘 찾아낸다. 지면에서 간혹 통계나 그래프가 기사 내용과 다를 때가 있다. 지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겼으면 한다. 여기에 한자와 정치관련 기사가 많아 중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거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은 신문의 장점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을 감안,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학교의 학부도 함께하는 사회공공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광주일보가 제시해주길 바란다.

또 지난 12일자 10면 ‘이반연은 가까운 도서관 나들이 어때요’처럼 책을 소개해주고 관련 행사도 알려주는 기사가 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도 실렸으면 한다.

▲이수학=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총선이 끝났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과연 총선 승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광주는 국민의 당에 표를 몰아줘 기존 여당도 야당도 제3의 정당을 선택, 정치적 소수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일보는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 광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지한 국민의 당에게 어떻게 지역민심을 잘 전달할 것인지, 향후 입법·정치과정, 그리고 목전에 닥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등 방향을 제시하고 또다시 정치적 소수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자동차가 광주 희망으로 떠오르는 듯 한 보도가 많다. 그러나 신문은 장미빛 전망만 제시할 게 아니다. 정말 우리 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떤 투자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고용시장이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할 것이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생산시설과 기업이 부족해 취업시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분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할 필요가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었지만 이곳 행사가 제대로 흥보되지 않는 것 같다. 콘텐트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넘어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지 등을 감시해 주길 바란다. 광주문화 중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더불어 도심 공동화에 휘청거리는 광주의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리=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http://art.kjmedia.co.kr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0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 기간 미술·작문 부문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의장상(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